

# 민생 드라이브...국민의당 '선도정당' 가속도

### 첫 경제현장 방문...인천 남동공단 근로자 애로 청취

### 대안·해법 제시...생산적 국회 활동으로

국민의당이 선도정당의 역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3당 중 가장 먼저 지도 체제를 정비한 여세를 몰아 다시 한 번 한 발 앞선 민생 행보로 20대 국회를 주도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4월에는 총선 이후 처음으로 경제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생 드라이브'를 걸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과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날 인천 남동공단의 화성품업체를 방문했다. 이번 일정은 당 정책역량 강화 집중워크숍 2차 행사로, 최근 당 워크숍에서 천정배 공동대표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구조 개혁 방안 등에 논의했다. 안 대표 등 지도부가 총선을 마친 후 경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대 국회를 앞두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도체제 문제로 총선 이후 혼란만 어수선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당은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당은 총선 직후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의 유임을 확정된 데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도 합의 추대하면서 20대 국회 체제로 전환했다. 이처럼 당 조직을 조기에 정비한 뒤 곧바로 생산적 국회를 위한 활동에 나서는 등 20대 국회의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이는 박 원내대표가 수차례

강조한 '리딩파티(선도정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현장 감각과 정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했다. 안 대표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국민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적어도 공정하게 책임을 묻겠으니 국민께서도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은행권의 연봉 성과연동제 도입 문제에 대해 "제도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초법적으로 감압적 행동을 중단하고 노사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해 "영세 유치원은 20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향 조정되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기 정책위의장 내정자인 김성식 최고위원은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사후관리 권한 등을 조건으로 협력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다음주 초계 최고위원, 사무총장과 당 정책연구원장 등 당 주요직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민의당 정책역량강화 집중워크숍

- 중소기업 현장을 가다 -

2016. 5. 4(수) 14:30 주식회사 서울화장품



국민의당 소속 의원 등이 4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서울화장품에서 열린 '국민의당 정책역량강화 집중워크숍-중소기업 현장을 가다'에서 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국토부 차관 "수서발 개통 맞춰 호남선 증편"

### 광주 국회의원 호남선 KTX 문제 해결 간담회

### "주말 좌석 확충·주차장 증편 방안 마련"

정부가 광주송정역 좌석 증편 등에 대해 아직도 미온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호남선 KTX 및 광주송정역의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 측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광주송정역의 모든 문제는 정부가 호남고속철에 대한 수요에

측을 처음부터 잘못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획기적인 좌석 증편, 주차장 대폭 증편, 광주송정역 후면도로 개설, 광주송정역사 증축, 복합환승센터 조기 착공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광주송정역 문제들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되 단기 과제들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시민들의 불

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호남고속철 증편과 관련, "하반기 수서발고속철(SRT) 개통에 맞춰 이뤄지게 될 증편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좌석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주말 좌석 확충방안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후면 주차장 238면 증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단기 대책으로 발렛파킹 제도를 즉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에도 광주송정역과 금호타이어 사이에 추진하는 후면도로(4차선) 신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의지를 가지고 기제부를 설득해 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 복합환승센터 문제는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중심이 되어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광주시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계속 지적돼온 문제점에 대한 신속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은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점들이 개통 초기부터 지적됐는데도 여전히 진전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선KTX 개통 1년을 맞아 KTX 이용객들과 광주시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광주송정역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장병완 정책위의장, 권은희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더민주 김종인 정국 구상 돌입

### 8일까지 휴가...당 조직 정비·인선 등 관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5~8일 연휴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어디 한 정국 구상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임기가 4개월 연장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수권 비전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당내 주도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약화된 경제 회복 방안, 총선 공약 실현, 대권 주자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됨에 따라 '경제비상대책기구'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대표와 협의해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후, 나머지 구성원들도 인선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경제 책사 역할을 해온 최윤열 당선인 등 좌우를 포괄하는 당 안팎의 경제전문가들을 고루 선정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도 김 대표 특유의 정치적 감

각과 추진력이 발휘되면 4개월 후 김 대표의 위상이나 당내 기반이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져 자생력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공인한대로 문재인 전 대표와 경쟁할 수 있는 '비노(비노무현)' 대선 후보를 발굴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임기 4개월의 '시한부' 비대위 대표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당내 권력이 중심추가 원내 지도부로 쏠리면서 비대위는 단순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경제정책과 공약 법제화 등을 주도하고 7월 말부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비대위의 역할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인선, 당헌·당규 손질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새누리 물밑 당권경쟁

### 친박-비박 비대위 역할 놓고 신경전

새누리당에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끝나자 당권경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이 분위기는 곧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론을 놓고 계파 간의 이견으로 표출되고 있다.

4일 현재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모두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제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담당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자 맡는 것은 무리라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바닥에는 차기 당권 장악력 확보를 위한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비대위의 역할 규정을 놓고는 계파 간 입장이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친박계는 실무형 또는 관리형 비대위 체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일단 전임 지도부의 임기가 끝나는 7월까

지만 비대위가 활동하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법을 포함한 전대 준비 및 선거관리에 역할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반면, 비박계에서는 비대위가 당 쇄신을 주도할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견해가 강하다. 요컨대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실세형 비대위를 통해 긴급 탈당과 당선인 북당 문제는 물론 그동안 논의로만 이뤄졌던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의 무노동·무임금, 출판기념회 금지, 총선 1년 전 당협위원장 사퇴 등 각종 정치 개혁 과제를 밀어붙여 야당에 우위를 점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수평적 당정관계를 포함한 여권 내 질서 재편도 의제로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박계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대통령 귀국...이란과 MOU 66건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방문 일정을 마치고 4일 오전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2박 3일의 이란 방문 기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차례로 만나 세일즈 외교 및 북핵 압박 외교에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이 체결한 66건의

조약 및 양해각서(MOU) 등을 토대로 이란의 인프라 건설 및 에너지 재건 프로젝트에서 최대 52조원을 수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북핵 불용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란 측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특구내 빌딩 매매

지하 1층 ~ 지상 7층 (중심 상업지역)

대지: 661㎡ (200평) 건축: 495㎡ (150평)  
연면적: 3,446㎡ (1042평)

**최상의 인센티브!**

법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 문화 콘텐츠 연계 사업시 최적
-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5년 범위내 감면
- 다양한 보조금 지원 및 대폭적임 세제감면 금융지원

010-8696-8949  
미래나눔공인중개사

### (주)다산부동산중개법인

부동산투자 컨설팅, 관리 상담, 상가 토지전문

아파트매도 - 북구 양산동 새한아파트

- 79㎡ 2층 남향 급매 8,950만원
- 운암동 건물 매매: 제1종 중생 대지 165㎡  
보증금 1억2천, 월세 290만원, 매매 7억2천

- 토지매도: 광산구 선운지구 5,400㎡ 매매가: 54억원, 지연복지지역, 8차선도로점, 미관지구

- 광주시내지역 6억, 10억대: 수익률 좋은 상가건물 매수

- 정읍 소성면 요양시설 매매: 4.6억 대지 800평, 건평 114평 시비권없음, 주변저수지 조망권 양호

**채용공고**

부동산경매 배우면서 일할실분  
NPL배우면서 일할실분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주)다산부동산 Tel. 062)682-2288  
365shops@naver.com H.P 010-5180-1945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신로 50번길 55번지 KT풍암빌딩1층(풍암저수지맛있어)

### 투데이 경매

부동산 경공매 추천물건

- 광주 서구 화정동 근린시설  
광천터미널 뒤편 위치  
현 나이크를림으로 사용중  
대지 2,644㎡ 건물 8,487㎡  
감정가 138억 8천  
최저가 62억 2천
-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나대지  
남평읍 광남 고등학교 인근  
도로점 나대지  
전원주택부지 및 청교적합  
대지 2608㎡  
감정가 4억 3천 최저가 4억 3천
- 광주 북구 운암동 근린상가  
운암동 공구거리 대로변위치  
사옥 전시장 점포 적합  
지하 1층 ~ 지상 5층  
대지 220㎡ 건물 641㎡  
감정가 7억 4천 최저가 5억 9천
- 광주 북구 신안동 모텔  
신안동 임동거리 인근 모텔  
지상 1층 ~ 지상 5층(객실28개)  
대지 363㎡ 건물 1024㎡  
감정가 9억 9천  
최저가 6억 9천
- 광주 남구 주월동 근린건물  
남구청에서 미래아동병원방향  
대로변 점, 사옥 병원 등 추천  
지하 1층 ~ 지상 8층  
대지 698㎡ 건물 3,752㎡  
감정가 138억 8천 최저가 62억 2천

투데이옥션 이현석  
010-9963-6345